

## THE CHURCH IN TORONTO

열 두 광주리 가득히 아침부흥 제 4 주

「베드로에게」와 발 씻음

2007년 10월 29일 ~ 11월 01일

## 제 1 부: 성경 말씀과 찬송

찬송: 475, -, 978, - (영 645, 881, 1235, 1238)

성경: 요한복음 13장 1~14절

1.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2.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3.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4.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겹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5.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6.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7.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8.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9.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10.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11.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12.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13.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14.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 제 2 부: 계시와 진리를 위한 아침부흥

제 4 주 : 「베드로에게」와 발 씻음

☞ ☞ ☞ ☞ ☞ 월요일 ㄹ ㄹ ㄹ ㄹ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 마가복음 16:7

7.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뵈오리라 하라 하는지라

**마태복음 28:7**

7.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오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베드로에게**

**◆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마가복음 16장 7절과 마태복음 28장 7절을 읽은 후 두 구절간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가? 마태복음에서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천사가 여인들에게 그의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라고 하였다. 마가복음에서 천사는 여인들에게 주님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을 전하라고 요구하였다. 아, 「(그리고) 베드로에게」라는 말이 눈물을 흘리게 한다. 사복음서 모두 주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오직 마가복음만이 「베드로에게」라는 말을 적고 있다. 요한은 주님이 사랑하셨던 자였는데, 왜 성경은 「요한에게」라고 하지 않았을까? 도마는 주님의 부활에 대하여 의심하였는데, 왜 「도마에게」라고 하지 않았을까? 천사는 가장 최고의 사도들이나 가장 필요한 사도들을 언급하지 않았다. 천사는 특별히 베드로를 언급하였다. 왜 그런가? 무엇이 베드로를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하였는가?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부활이 있기 삼일전, 베드로는 큰 죄, 주께서 아버지의 사자들 앞에서 베드로를 시인하게 할 수 없는 큰 죄를 범했다.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천대받던 하녀 앞에서조차 주님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주님은 여인들이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원하셨다. 「베드로에게」라는 말은 매우 깊은 의미가 있다! 만약 어떤 형제나 자매가 베드로와 같은 체험을 하였다면,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아! 나는 이미 넘어졌다. 내가 범한 것은 작은 것이 아니다. 아마 나는 다시는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없을 것이다. 주님은 이미 나를 버리셨을 것이다. 이후로는 중대한 일이 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실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다시는 주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그러한 특별한 체험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다시는 겟세마네에서 주님의 동반자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

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주님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지. 그때 나는 주님이 나를 오해한 것이라고 생각했었어. 그가 사람에게 붙잡힐 때 나는 칼로 어떤 사람의 귀를 베어버렸고, 아직도 나는 용감히 주를 사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결국 내가 넘어진 것을 알았다. 나는 권위 있는 대제사장이나 세력 있는 빌라도 앞에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일개 하녀의 한 마디로 인해 넘어진 것이다. 한 번 부인했고, 두 번 부인했고, 심지어는 맹세하며 주를 부인했다. 나는 일찌기 그분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했었다. 나는 일찌기 그분에게,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라고 말했지만 주님이 곧 십자가에 못 박히려 하는 것을 보고는 넘어진 것이다. 나는 주님을 부인한 가장 큰 죄를 범했다. 내가 울기도 했고 후회도 했지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실지 모르겠다. 그날 내가 그를 부인한 것을 그분이 모른다면 괜찮겠지만, 내가 그를 부인할 때 그분이 몸을 돌려서 내 눈을 보셨다. 이것은 그분이 이미 알았음을 말하고 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감히 그분을 가까이 할 수 없다. 그는 나를 사랑하시지만 한 가지 죄가 나와 그분 사이를 나뉘어 놓았기 때문에 감히 그분을 가까이 하지 못하겠다. 어쩌면 이제부터 다시는 그분을 가까이 하지 못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분은 부활했다. 몇 명의 부녀가 와서 말을 전했다. 분명히, 특별히 나에게 이르라고 말씀하셨다지 않은가! 아! 나는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지만,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 그분은 결코 나를 원망하지도, 나에게 화를 내지도 않는구나. 그분의 마음은 나를 그리워하신 것이다. 그분은 특별히 다른 사람을 언급하지 않았고 특별히 나를 언급하셨다. 마치 그분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나 한 사람인 것처럼. 「베드로에게! 베드로에게!」 이것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다. 가장 기묘하고도 기쁜 소식이다. 주님이 만약 그녀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르라고만 하셨다면 나 같은 사람은 제자 될 자격이 없고 제자가 아니므로 감히 그분을 보러 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이 「베드로에게」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분이 아직도 나를 필요로 하심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이다. 나에게는 보러 갈 힘이 없지만, 「베드로에게」라는 말이 다시 보러 가도록 나를 격려하는구나. 부녀가 전한 말은 정말이다. 주님은 처사에게 특별히 내 이름을 말하라고 했다. 주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나는 아직 그분을 가까이할 수 있다. 일어나서 그분을 보러 가자.」 (워치만 니 전집 1집 제18권, 제2장 「베드로에게」 14~16쪽)

📖 사도행전 10:43

43.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 요한일서 1:9

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 히브리서 10:21-22

21.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22. 우리가 마음에 부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 복음의 핵심 - 주님은 결코 낙심하지 않으실 것임

여기 넘어졌고, 죄를 범한 베드로, 주님을 부인하였던 베드로가 있었다. 하지만, 주님은 특별히 그를 언급하셨다. 이것이 복음이다! 주님이 당신을 한 번 구원한 것은 영원히 구원한 것이다. 당신은 낙심하지만 주님은 영원히 낙심하지 않으신다. 죄를 범한 당신은 그분에게 돌아가는 것이 약간 곤란하다고 느끼지만, 주님은 결코 당신이 범죄한 것을 그분에게 돌아갈 수 없는 어떤 것으로 여기지 않으신다. 그분은 개의치 않으시는데 왜 도리어 당신은 당신의 실패를 잊어버리지 못하고 있는가? 오늘 주님이 만약 여러분의 얼굴에 있는 수건을 벗긴다면 여러분은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가까이하지 않으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다. 베드로는 아직도 그가 일찌기 주님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마 26:33). 그는 또한 계네사렛 호수가에서 주의 영광을 보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눅 5:8). 그러나 그는 오늘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고서 감히 주님을 보러 갈 수 없는 것이다. 그는 아직도 주님의 요구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마 26:40). 그는 주께서 그의 귀에 대고 명령하시는 것을 들었을 것이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마 26:41). 그러나 그의 상황과 주님의 요구는 거리가 너무 멀어진 것이다. 어떻게 감히 주님을 보겠는가? 그러나 그는 결국 주님을 보러 갔다. 단지 「베드로에게」라는 이 한 마디로 인하여 감히 주님을 보러 갔다. 형제 자매여, 당신이 「베드로에게」라는 말 속에 포함된 뜻을 알았다면, 그분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만약 여러분이 『베드로에게』 라는 말의 깊은 뜻을 안다면 주님을 가까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 은혜받은 자에게 있어서 은혜의 말은 특별히 기념할 만한 것이다.

형제 자매들이여, 주님을 기념하는 만찬 때에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는가? 혹은 당신과 하나님과의 교통을 가로막는 어떤 죄가 있지 않은가? 우리는 이미 통곡했고, 후회했고, 자신이 한 것이 너무나 주님께 죄송함을 자백했다. 오늘 우리는 거리낌없이 주님께, 『주여, 내가 당신에게 가까이 갑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라. 그분이 당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가기를 원하셨는데, 지금 당신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타락했다해서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시겠는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감소되었겠는가? 오늘 당신이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가까이하지 않고 그분에게 돌아가지 않기는 쉽지만,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을 잊고 여러분을 버리는 것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주님이 죽은 후 삼일 동안 베드로는 주님을 버리고 말없이 슬퍼했겠지만, 주님은 그를 잊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당신도 주님 앞에 나아갈 힘이 없다면 그분의 말을 믿기만 하라. 그분이 그분에게 갈 수 있는 힘을 당신에게 주신 것이다. 당신이 넘어질 때 그분은 당신을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당신은 그분을 더이상 가까이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당신이 만약 믿음 안에서 『베드로에게』 라는 말을 기억한다면 그분을 가까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하려고 해도 거리가 너무 멀어서 가까이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베드로에게』 라는 말을 기억해야 한다. 넘어진 베드로이므로 주님이 더욱 더 기억하실 것이다. 베드로는 감히 주님을 가까이할 수 없었지만 주님의 마음이 그를 당겨서 주님께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이 『베드로에게』 라는 음성을 들었다면 주님이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주님은 결코 베드로를 버리지 않는 것처럼 당신도 버리지 않으신다. 『베드로에게』 라는 뜻은, 바로 베드로처럼 실패한 『당신에게』 인 것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 주시기를 원한다. 당신이 만약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된다면 그분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同, 17~18쪽)

☞ ☞ ☞ ☞ ☞ **수요일** ☞ ☞ ☞ ☞ ☞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 📖 요한복음 13:1下, 5上

1. ... 예수께서 ...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5.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발 씻음**

◆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살핌**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은, 생명은 물의 어머함과 같다는 것이다. 4장에서는 우리가 생명을 얻은 후에, 그 생명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샘물이 되고 계속 영생하도록 솟아나는지를 말하고 있다. 7장에서는 우리에게, 물이 어떻게 생수의 강처럼 사람의 배 속에서 흘러나오는지를 말하고 있다. 13장에서는 물이 또한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말한다. 물은 우리 안에서 계속 솟아나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생수의 강물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신선함을 주고 새로운 느낌을 주어 우리에게 새로운 도움을 줄 수 있다. 사람의 머리로 보면 13장은 필요 없는 것 같다. 4장과 7장으로 충분하다. 안에는 샘물이 있고 밖에는 강물이 있는데 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아마 다른 것은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당신은 거둬냈지만 가끔 거둬나지 않은 것처럼 느낄 때가 있지 않는가? 당신은 말씀에서 주님이 준 물이 당신 안에서 샘물이 되고 영생하도록 솟아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느날 당신은 이 생수의 샘물이 솟아나지 않는 것을 느끼지 않았는가? 당신은 만족하고 요구가 없다고 말했지만 며칠 동안 당신 안에서 만족을 느낄 수 없지 않았는가? 당신은 안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요구가 있고, 만족이 없고, 솟아나는 것이 없음을 느끼고,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이 없음을 느끼지 않는가?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의 영적 상태는 가끔 마르고 답답함을 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13장의 물이 필요한 것이다. (워치만 니 전집 2집 제17권, 제19장 『발을 씻기다』, 144~145쪽)

◆ **우리의 죄들을 씻어내는 것과 우리의 영적 상태를 씻는 것의 차이**

...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앞길을 잘 걸어가려면 다른 사람이 발 씻어 주는 것을 어떻게 받고 다른 사람의 발을 어떻게 씻기는지를 알아야 한다. 달리 말하면,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발 씻기는 체험이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발을 씻는 체험이 있어야 한다.

... 그날 만약 주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지 않으셨다면 베드로와 무관했을까? 관계가 있다. 베드로는 목욕을 한 사람이었으므로 이미 관계가 있었고 영원토록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이 베드로를 위하여 발을 씻기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교통에 있어서 관계 없는 것과 다름 없었을 것이고 주님을 만질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요한복음 13장에서 말한 발 씻는 문제는 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생명과 능력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생명의 신선함의 문제라는 것이다. ... 주 예수님은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발을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고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발을 씻으셨다. 발에 먼지가 있었기 때문이지 죄 때문이 아닌 것이다. ... 주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발을 씻으신 것은 그들의 어둡고 신선하지 않는 문제를 처리한 것이지 죄의 문제를 처리한 것이 아니다. 죄는 보혈로써 정결케 된다. 우리는 반드시 보혈이 있어야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하다. 우리는 보혈의 정결함 아래 있지만, 모두 영적 신선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로 씻음이 필요하다. 사람이 물로 한 번 씻으면 상쾌하고 신선함을 느끼게 되고 따라서 자연스럽게 정신도 회복하게 된다. 보혈의 씻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능히 서 있을 수 있게 하고, 물의 씻음은 우리로 하여금 신선함을 느끼게 하고 상쾌함을 갖게 하고 정신이 들도록 할 것이다. (同 145~146 쪽)

☞ ☞ ☞ ☞ ☞ 목요일 ☞ ☞ ☞ ☞ ☞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 **에베소서 5:23下, 25下, 26**

23. ...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25. ...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26.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 **히브리서 2:14**

14.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 **물로 씻음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겨냄**

우리는 사단의 능력이 죄에 기탁하고 사망에 기탁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히브리서 2장은 우리에게, 사단의 권세가 사망에 기탁함을 보여 준다.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여 그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거나 사망 가운데 있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도 정결함을 지킬 뿐 아니라 생명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한다. ... 사단은 우리의 몸에 역사하여 우리로 죄를 범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를 암담하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에도 의미를 갖지 못하게 하고 아주 냉담해지게 하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버린 것 같게 하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것처럼 여기게 한다. 당신은 종종 이 죄도 범하지 않고 저 죄도

범하지 않았는데 속이 매우 식어져 버린 것 같고 신선하지 않고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것을 느낄 것이다. 이러한 상태를 사망이라 부른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영적 정신」의 부족함 때문에, 특별히 잘못된 것이나 죄를 지은 것도 없지만 힘이 없고 식어져서 일어날 수 없음을 항상 느끼는 것이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암담한 그리스도인들은 사단과 전쟁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죄만이 여러분으로 전쟁의 조건을 잃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암담함도 전쟁의 조건을 잃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죄에서 벗어나 자신을 지켜야 할 뿐 아니라 암담함에서 벗어나 자신을 지켜야 한다. 이런 암담한 상황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증명해 보겠다. 여러분이 집회에 올 때에 몇 번이나 생명을 가지고 나왔는가? 항상 영적인 정신이 조금도 없었는가? 몇 번이나 적극적이었으며 몇 번이나 소극적이었는가? 적극적이지 않은 모든 것은 사망이다. 집회중에서 말하는 사람에게 생명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도 생명이 있어야 한다. 많은 사람이 집회에 올 때 그렇게 암담하고 피곤하다면 영적 정신이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람이 대부분이라면 그 집회의 짐은 너무나 무거울 것이다. 모두가 짊어질 수 없음을 느낄 것이다. 그러므로 각 집회를 대할 때 마다 말하는 사람이 생명으로 교회에 공급해야 할 뿐 아니라 집회에 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교회에 생명을 공급해야 한다. 우리는 피동적일 수 없다. 당신이 집회에서 피동적일 때에는 당신이 교회에 짐을 지우는 것이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단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데 특별히 사용하는 것이 사망이라는 것이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사망을 만지도록 하여 우리의 생명을 소모시키려 한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의 영적 상황이 암담할 때 물로 씻음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한 차례 목욕을 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여러번 발을 씻게 하신 것이다. 한 차례의 목욕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했고, 발을 여러 번 씻음은 생명의 신선함을 회복하게 한다. 사람이 목욕을 하면 생명이 있게 된다. 할렐루야! ...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목욕 후에도 계속 신선한 느낌을 갖는가? 많은 사람들이, 「처음 사랑을 잃지 않을 수 있다면 좋겠다. 내가 구원을 받던 때의 며칠 동안처럼 될 수만 있다면 좋겠다.」고 말한다. 이 뜻은 지금은 목욕한 후와같이 신선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발 씻음이 필요한 것이다. 발 씻음은 목욕한 상태로 데리고 갈 것이다. 발 씻음은 당신으로 하여금 생명의 신선함을 갖게 하고, 새로운 느낌을 갖게 하고, 신선한 능력을 갖게 하고, 영적인 부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발 씻음이 당신에게 주는 것이다. 발 씻음

은 사람으로 깨끗함을 갖게 할 뿐 아니라 상쾌함을 줄 것이다. 발을 씻은 후에 사람은 편안하게 되고 정신이 나게 된다. 발 씻음은 우리의 영적 신선함을 회복하는 것이고 생명의 충만함을 갖게 하는 것이다. 형제 자매들이여, 발 씻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생명의 회복, 영적 정신의 회복은 중요한 일이다. (同 147~148 쪽)

☞ ☞ ☞ ☞ ☞ **금요일** ☞ ☞ ☞ ☞ ☞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 **에베소서 4:2**

2. 모든 겸손(비하)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서로를 짊어지고)

📖 **에베소서 5:1-2상**

1.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2.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 드리셨느니라

📖 **요한복음 13:13-15**

13.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14.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15.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 **교회는 지속적인 발 씻음을 필요로 하고 있음**

주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발을 다 씻기신 후에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발을 씻는 일이 교회가 계속해야 할 일임을 보여 준다. 발 씻기는 일이 우리가 서로 해야 할 일이다.

당신에게는 이러한 체험이 있는가? 당신의 영적 힘이 빠진 것 같고 매우 떨어진 것 같아 스스로 자문해 보면, 특별히 잘못된 것이나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다만 매우 피곤할 뿐이고 힘이 전혀 없을 뿐이다. 그래서 당신은 어떤 형제의 집에 가본다. 그는 매우 말을 잘하며 당신에게 들려 주지만 당신은 이 말을 들을수록 식어져서 돌아와 버린다. 당신은 다시 어떤 형제의 집에 가서 오랫동안 함께 기도해 본다. 그래도 소용이 없음을 느끼고 다시 돌아와 버린다. 얼마 후에 당신은 또 한 형제를 만나 본다. 그는 말씀도 전하지 않았고 함께 기도하지도 않았다. 다만 함께 이야기만 나누었다. 그는 무심히 말하고 당신도 무심히 들었지만 당신

은 그러한 대화에서 정신이 들게 되고 힘을 얻게 된다. 당신은 그의 말을 몇 마디 듣자 곧 찬송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신이 들어갈 때에는 걱정 근심이 가득했지만 나올 때에는 할렐루야를 말할 수 있게 된다. 전에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이 매우 억지스런 것이었겠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 지금은 주님의 생명을 만진 것이다. 이 형제는 생명으로 당신에게 공급한 것이며 당신의 발을 씻은 것이다. 발을 씻음은 교회 가운데에서 피차 생명으로 다른 지체를 공급하는 것이다.

우리가 공장이나 학교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고 나면 매우 피곤하여 영적인 힘을 차릴 수 없다. 성경을 읽어도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기도를 해 봐도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바로 이러한 때에 집회에 가거나 집에 돌아와서 주님을 아는 형제를 만나면 그와의 마주침은 당신으로 하여금 정신이 들게 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할 것이다. 그는 생명으로 당신을 공급할 것이고 당신의 발을 씻긴 것이다. 생명과 접촉할 때 당신의 영적인 힘은 회복될 것이고 당신은 다시 밝아질 것이다. 이것을 서로 씻김이라 부른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돕는 것 중에 발을 씻어 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생명으로 다른 지체에게 공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만약 어떤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피곤하고 연약하여 집회에 왔는데 돌아갈 때에도 여전히 그렇게 피곤하다면 그 집회는 실패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집회에 올 때마다 반드시 생명을 가지고 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집회의 무거운 짐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각 사람은 집회에 올 때 형제 자매들로 하여금 생명을 만질 수 있도록 생명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 영적 암담함을 사라지게 하고 밝아지고 신선해질 수 있도록 생명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 (워치만 니 전집 2집 제17권, 제18장, 149~150 쪽)

☞ ☞ ☞ ☞ ☞ **토요일** ☞ ☞ ☞ ☞ ☞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 **데살로니가전서 3:6-8**

- 6.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 7.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 8.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 **고린도후서 7:5-7**

- 5.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름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6.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7.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 ◆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 공급의 사역자가 되기를 갈망하라

...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려면 먼저 자신이 신선해야 한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자주 새롭게 하신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주 새로움을 공급할 수 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우리를 만날 때 우리가 오 년 전의 상황과 다름 없다면 우리는 불쌍한 것이다. 우리에게 몇 년 지나서야 새로움이 있거나 몇 개월 지나서야 새로움이 있다면 그것도 불쌍한 일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야 하고 능동적이어야 하고 정지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자매는 주님의 특별한 양육을 받아 특별한 한 가지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그녀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그녀에게 역사하신 새로운 것을 보게 되고 신선한 생명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많은 경우에 당신은 주님의 임재를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인 면에서 매우 피곤함을 느낀다. 좋다. 그녀를 찾아가라. 그녀 앞에서 몇 분 동안 앉아 있으면 피곤함이 사라질 것이다. 당신은 그녀로부터 생명이 나오는 것을 느낄 것이다.

형제 자매여, 우리는 생명의 공급자가 되기를 사모해야 한다. 당신은 자신의 말재주가 다른 사람만 못하고 성경의 지식도 다른 사람만 못하다고 실망하지 말라.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당신이 생명 안에서 살아 있다면 생명으로 다른 지체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방금 구원을 받은 어떤 사람은 기도집회 중에서 기도할 때 매끄럽지는 않아도 다른 사람이 접촉할 때 밝아지고 공급을 얻는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된지 오래 되었지만 생명의 공급이 부족하다. 그리스도인이 된지 몇 년 되었고 지식도 증가되었고 교리도 증가되었지만 생명의 공급이 부족한 것이다. 생명의 공급은 지식에 관계되지 않고 신선함에 관계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차라리 지식이나 교리가 약간 부족할지라도 생명의 공급을 잃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생명 공급을 할 수 없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구원하시기를 주께 구해야 한다. 참으로 주 앞에서 살아 있도록 주님께 구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주 앞에서 살아 있다면 생명을 만질 것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생명으로 다른 사람을 공급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발을 씻길 수 있을 것이고, 그로 하여금 생명의 신선함을 얻게 하고 영적 회복을 얻게

할 것이다. (同, 151~152 쪽)

◆ 추구 자료 ◆

1. 위치만 니 전집 제2집 제17권, 『일반 메시지 (1)』, 제19장 「발을 씻기다」
2. 위치만 니 전집 제1집 제18권, 『주제별 진리 연구 기록 (2)』, 제2장 「베드로에게」
3. 위트니스 리, 요한복음 라이프-스타디, 메시지 27 & 28 「교통을 유지하기 위한 사랑 안에서의 생명의 씻음」

**제 3 부: GTA 권속 교통**

〈기도의 부담〉

1. Ajax에서 매주 화요일 수 명의 청년들이 한 Fish & Chips 식당에서 복음을 듣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들 청년들의 마음이 열리어 해방된 말씀이 꿰뚫고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 최근 침례를 받은 15 명의 성도들이 생명과 진리 안에서 성장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기 위한 간증이되기를 기도합니다.
3. 이번 주에도 청소년들의 복음전하기를 주께서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주님께 얻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소식 및 안내〉

집회 안내

Hall 3 주일 집회 시간표:

- 10:00am - 10:30am : 주의 만찬
- 10:30am - 11:00am : 자유 교제 시간
- 11:00am - 12:00am : 찬양, 찬송과 메시지

【집회 시간 및 집회소 안내】

Lord's Table	Hall 1,2 & 3	Sunday, 10:00 AM	Hall 1	671 Sheppard Ave. E, North York, ON M2K 1B6 (416) 221-7610
Young People	Hall 1	Saturday, 7:00 PM	Hall 2	24 Cecil St. Toronto, ON M5T 1N2 (416) 977-5588
College Meeting	Hall 2	Friday, 7:00 PM	Hall 3	7 Gretna Ave. Toronto, ON (416) 757-7117
Grade 6 Meeting	Hall 1	Saturday, 7:00 PM	자매집회	매주 목요일, 오전 11:00 (한국어 자매 집회)
Prayer Meeting	Hall 1 & 3	Tuesday, 7:30 PM	소그룹1	매주 토요일, 오후 1:00시 (한국어 가정 소그룹)
	Hall 2	Tuesday, 7:00 PM	소그룹2	매주 수요일, 저녁 7:00 (한국어 가정 소그룹2)
Homepage	www.churchintoronto.org		Home2	www.thechurchintoronto.ca

(이 아침부흥지는 영어 아침 부흥지를 번역한 것입니다. 영어 아침 부흥지는 www.thechurchintoronto.ca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